

## 도전하는 삶은 아름답다 롯데삼강 베테라 **정운정**

도전하는 삶은 아름답다. 롯데삼강 상품 개발실의 정운정 씨. 그녀는 새로운 삶에 도전하고 개척하는 사람이다.

건국대 농학과를 졸업한 그녀는 프랑스의 '꼬르동 블루'에서 공부한 해외 유학파로 롯데 삼강에 입사한지 1년째를 맞고 있다. 얼핏 평범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력이지만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생활은 도전과 적극적인 삶 그 자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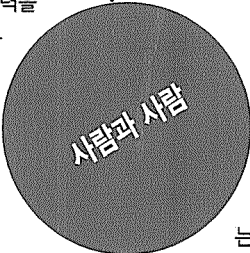
첫번째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 재학 중의 이스라엘행. 그녀는 교수의 강의 중 이스라엘의 집단 농장인 '키부츠'에 대한 설명에 매력을 느껴 부모에게는 출국 며칠전에만 알리고 이스라엘로 가 4개월간 키부츠에서 생활했다. 이어 대학 졸업 후 파리 '꼬르동 블루'에서 공부할 때도 집안이 부유한 편이어서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생활비는 자신이 해결하고 싶어 아이를 보살피는 아르바이트와 여행 가이드를 하는 등 적극적인 면에서 생활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입사에 얽힌 일화도 정운정 씨의 적극성을 엿볼 수 있는 한 단면. 유학을 얼마 안 남기고 잠시 귀국, 취직을 위해 교수의 추천으로 롯데 삼강 이영종 사장과 만난 면담에서 입사를 조건으로 마지막 등록금을 회사에서 대줄 것을 요구해 성사시킨 적도 있다.

현재 그녀가 하고 있는 일은 3개월마다 발행되는 기술 정보지인 베테라紙를 만들기 위해 취재를 하고 원고를 정리하는 등 제작을 도맡고 있으며 상품 개발과 정보 수집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아버지가 외교관인 탓에 7년간을 미국에서 보내 친구도 별로 없고 마땅히 할 일도 없어 주말이면 제과점을 둘러 보며 유행 제품과 제품 수준을 고려해 상품 개발에 반영할 정도로 자신의 일에 빠져 있다.

영어와 불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간혹 무역하는 아는 사람으로부터 스카웃 제의를 받기도 하지만 정운정씨는 자신의 일이 너무 좋아 회사에서 쫓아내지않는다면 계속 근무하고 싶다고 웃는다.

활달한 성격의 그녀는 삶에 대해 적극적이기 때문에 재주도 많다. 태권도가 2단이며 컴퓨터기사 자격증도 소지하고 있다. 앞으로 상품 개발과 함께 인터넷을 이용해 해외 정보를 많이 수집하고 싶다고 밝히는 그녀에게서 도전하는 삶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이 허얀 가운데 저의 삶이자 보람이죠. 제 젊은 날의 도전이자 희망이구요.”

전등사로 유명한 강화도, 그곳 강화군청 바로 건너편에 올해 29세의 한 젊은이가 희망과 보람을 맛있게 구워 내고 있다. 상호는 하니베이커리.

공업고등학교 전자과를 졸업. 고교 선생님의 소개로 88년 2월 국제제과직업훈련원을 2기생으로 수료한 정성래 씨는 당시 부산뉴욕제과 김영진 사장의 “빵쟁이가 되지 말고 제과인이 되라”는 한마디의 말이 베이커리인으로서 그의 좌우명이 되어 버렸다.

“하니베이커리를 오픈한 지는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4번 개점했죠. 너무 일찍 자영업을 시작해서 기술적으로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신의 점포를 갖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만 수박 겉핥기식 기술습득은 베이커리인들에게는 큰 적이죠.”

그는 이러한 기술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디딤돌’이라는 모임을 통해 세미나를 개최한다든지 3개월 전부터 시작한 컴퓨터 통신을 이용해 다양한 기술정보의 교류를 시도하려 하고 있다. 또한 컴퓨터 통신 등 호회를 결성, 베이커리인들의 기술적 컨소시움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베이커리업계의 정보마인드 부재가 그의 의욕을 꺾이게 한다.

컴퓨터 통신을 통해 정보교류가 이뤄지면 구태여 많은 돈을 들여 세미나를 한다든지 모임을 가질 필요가 없어진다. 사이버 스페이스를 통한 신속한 정보교환이 시간과 돈을 절약해 준다.

“베이커리인들도 이전 눈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가진 자만이 살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무한한 정보교환이 가능하다는 것이 컴퓨터 통신만의 장점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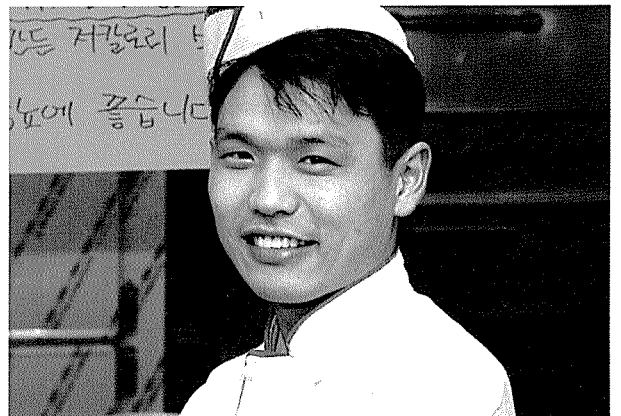
한 젊은이의 작은 외침쯤으로 치부해 버릴 수도 있는 얘기지만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 그러함을 모두가 알아야 한다. 그는 주저 없이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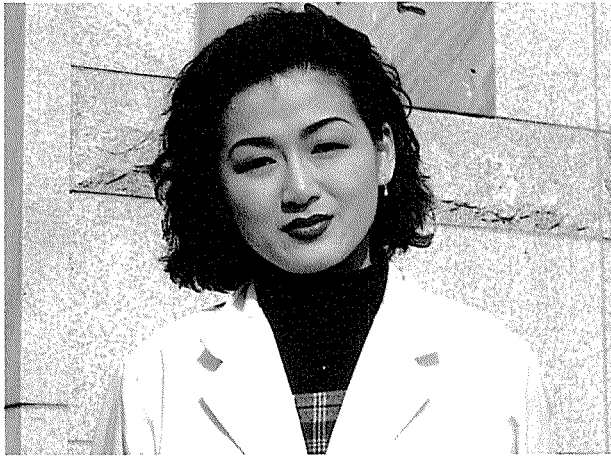
“빵은 거짓말을 안한다. 단지, 한 만큼만 보여질 뿐이다.”

그는 아직 미혼이란다. 그의 하이텔 ID는 honey21.

자! 끝없는 정보의 바다에서 그를 만나보자.

## “이 허얀 가운데 나의 미래를 건다!” 강화도 하니베이커리 **정성래**





## 가르치면서 인생을 배운다 세종대 사회교육원 신경화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베이커리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처지에 무엇을 가르친다는 것은 엄두도 못낼 일이었죠.”

세종대 사회교육원 제과제빵과 조교 신경화(27)씨는 조교 초기시절을 이렇게 떠올렸다. 그가 이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은 93년 6월. 세종대 가정학과에서 의상을 전공한 그는 교수님으로부터 2학기부터 새롭게 개설될 제과제빵과 야간 과정 조교일을 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제의를 받았다. 재학 중 요리실습을 빼놓지 않고 수강할 정도로 요리를 좋아했던 그를 떠올려 교수님이 추천을 한 것이었다. 걱정은 됐지만 베이커리와 요리는 비슷한 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며 제의를 받았었다. 그러나 그게 그렇지 않았다.

“당혹스러웠어요. 학생들이 만든 제품을 그저 바라보기만 할 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이지만 그런 제 모습이 학생들에게 박식한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우습죠?”

그는 1기 수료생들을 잊을 수 없다. 신출내기 조교생활에서 처음으로 만난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베이커리 초보자인 그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는 재료와 각종 기계를 챙기는 등 수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면서도 틈틈히 베이커리를 공부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제과점에서 일을 하면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에게 물었다.

“빵처럼 진실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노력한 만큼 모양과 맛이 나오거든요.”

그래서일까. 그는 노력한 보람을 거두었다. 지난해 제과사, 제빵사 자격증을 딴 것이다. 어느 정도 쌓여 이제는 강사를 보조하며 기술을 지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수강생 중에는 20대 초반의 젊은층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험을 한 사람들도 쉽게 눈에 띈다. 그는 이들과 1년동안 같이 생활하며 풍부한 인생경험을 들을 수 있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이곳에서 사회 생활을 시작한 저에게 나이 지긋한 분들의 경험담은 우물 안에 있던 제 시야를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됐어요.”

세종대 사회교육원이 들어가 있는 건물 이름은 ‘새날집’이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새날을 위한 준비에 구슬땀을 흘린다. 그는 오늘도 이들을 가르치면서 이들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인생을 배우고 있다.

제과를 배운 후 사는 곳에 대한 ‘정주심’을 갖고 애정을 키우는 주부가 있다. 고은미 씨. 그녀가 태백에 터전을 잡은 것은 86년이다.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탄광촌이 준비된 이곳에서 정을 붙이고 살기 위해서는 ‘무엇인가’가 필요했죠.”

그때 한 친구가 제과기술을 배우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의를 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잠실 롯데 문화센터에 수강신청을 했다.

이때부터 그녀의 일상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매주 월요일에 한번씩 있는 수업에 참석하기 위해 태백에서 서울까지 다시 서울에서 태백까지 왕복 10시간을 차에서 보내는 고생을 감수했다. 그러나 그녀는 결석을 두번밖에 하지 않을 정도로 열성적이었다. 몇해전 기차가 파업을 해서 서울오는 일이 막막했을 때는 강릉까지 가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올라와 수업에 참가했다.

처음에는 취미로 배울 생각이어서 3개월만 다닐 생각이었단다. 그녀 자신도 이 정도로 열심히 배울지는 몰랐단다.

그녀는 제과기술을 배운 후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일이 많아졌다. 먹음직스러운 빵과 케이크를 만들어 동네 엄마들에게 선물하고 딸아이의 학교 친구들에게도 나눠준다. 그래서 그녀의 인기는 최고다.

“이곳은 다른 지역에 비해 문화나 교육면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또다른 행복입니다.”

그녀는 1년전부터는 자신이 배운 것을 주변 엄마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처음 시작했던 팀들이 아직까지 계속 그녀에게 배우고 있고 배우기를 원하는 엄마들도 늘고 있다.

그녀는 내년에는 이곳 태백에 예쁜 제과학원을 개원할 예정이다. 그래서 올해의 최대 목표는 가을에 제과제빵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다. 그녀가 이곳에 왔던 86년에는 태백 인구가 12만 정도였다. 그러나 폐광 지역이 늘어나면서 인구도 절반 정도로 줄었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그들만의 언어로 ‘정주심’이라는 말을 쓴다. 우리는 이곳 태백을 지켜야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그녀도 그동안 배웠던 제과기술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면서 태백의 성원이 될 결심이다.



## 제과기술 배운후 ‘정주심’ 갖게 된 잠실롯데문화센터 고은미